# V 결론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보험 수요의 변화, 특히 건강보험 수요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량분석을 시도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나타나는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 정량적인 모형을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주로 정성적인 예측에 기반한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거시일반균형모형에 공적·사적 건강보험을 내재화하여 기존의 논의를 보완·확대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기존의 논의와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도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보다 정교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인구구조 변화는 각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거시경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기대수명 증가를 인지한 개인의 고연령 노동공급 확대, 확대된 은퇴기간의 경제상태 변동성에 대응한 예비적 저축수요 증가 및 소비 감소 등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총노동은 감소하고 개인의 저축유인 증가에 따라 실질이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산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개인이 기대수명 증가를 보다 심각하게 인지하면서 현재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노후소득보장 상품인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을 의미한다. 고령에서의 노동공급 증가는 질병과 상해 등 노동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리스크에 대한 보장 니즈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에 따른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한 소득상실 보험, 정액형 질병, 상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본 보고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모형을 확장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의료비의 실질 인플레이션이 5%라는 가정하에 2030년, 2040년, 2050년 민간의료보험 총보험료 변화를 살펴봤을 때, 민간의료보험 총보험료는 기준경제

대비 4.7%, 5.3%,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이후 민간의료보험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와 같은 저연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7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결국 민간의료보험 수요 또한 정점을 찍고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70대 이상 고령층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도 요구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적보험 및 사적보험을 내포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 모형)을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모델링의 특성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다소 경직적인 가정이 사용될 수 밖에 없다. 먼저 본 보고서는 개인이 1년 단위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보험의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모형이 Markov 프로세스에 기반하고 있어 개인의 의사결정 결과가 1기간 이상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가정이다. 그러나 장기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이 매년 계약유지 또는 해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경우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가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모형의 한계로 실질 의료 인플레이션을 내재화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때를 가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감안할 경우 총의료비 지출 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나, 제한적인 가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급여 의료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비급여 의료비를 확대하는 풍선효과를 통해 개인의 민간의료보험 니즈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현실을 모형화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한정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사항으로 인해 의미 없는 연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정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논의를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해 정량분석은 의미 있는 시도이며, 모형의 개선과 발전을 통해 논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모쪼록 본 연구가 인구구조 변화라는 큰 파도 앞에 서 있는 보험산업이 이를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는 데 일말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